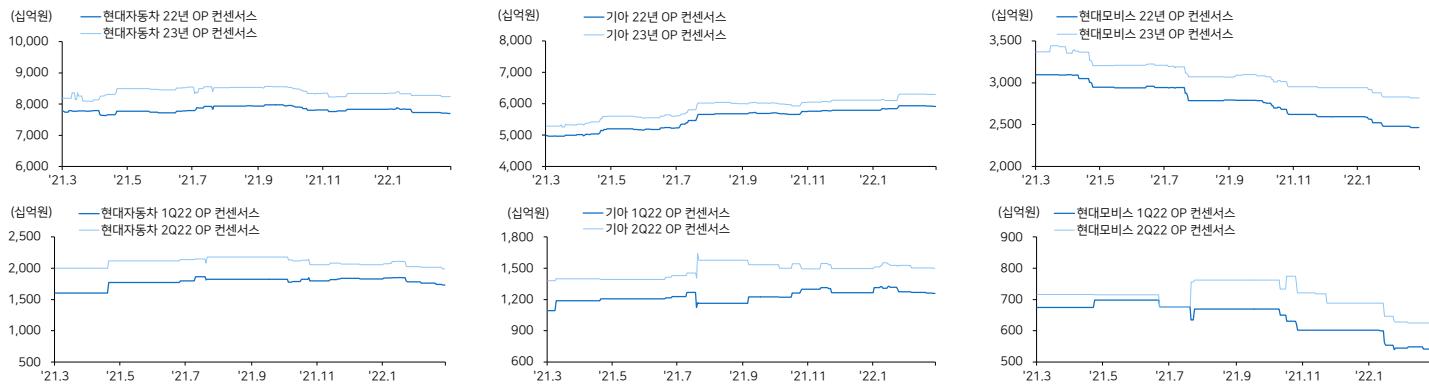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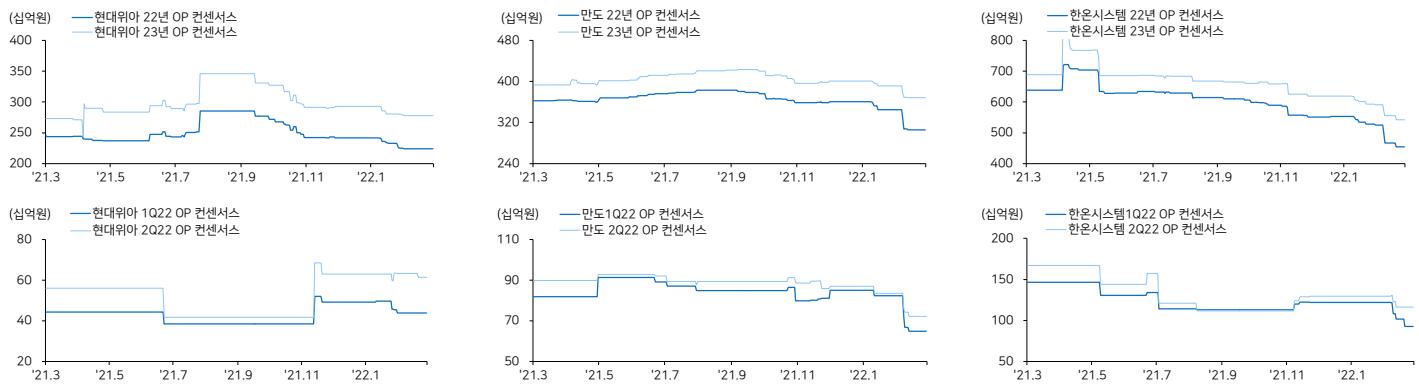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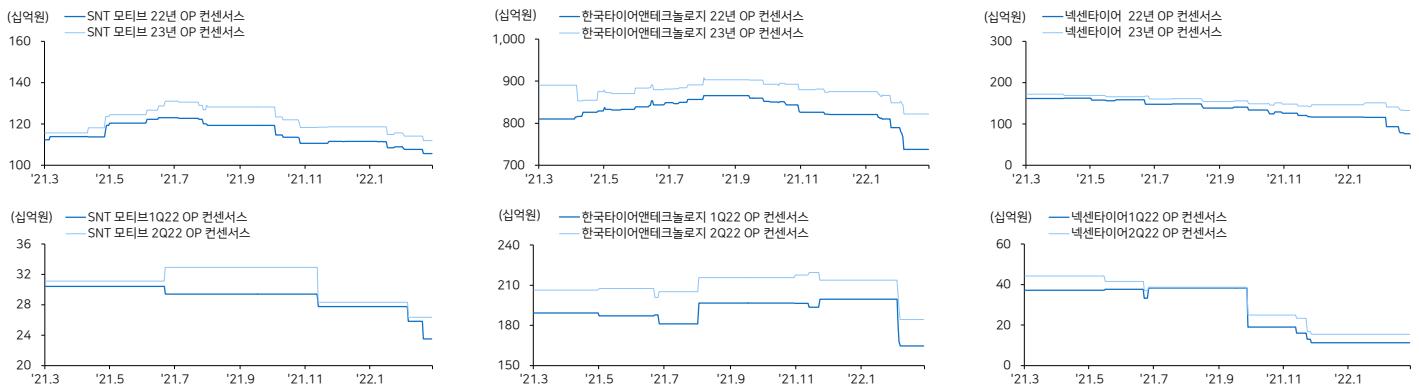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N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2월 미국 시장서 소매판매 사상최다…기아차도 2.3% ↑ (연합뉴스)

현대차 미국법인은 2월 미국시장 소매판매가 yoy +19% 증가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 소매판매와 법인판매 합산 판매량은 52,424대로 yoy +8% 증가함. 투싼과 팰리세이드, 베뉴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판매를 견인함.

<https://bit.ly/3puLhQ>

中 신에너지차 1위 BYD, 바이두 자율주행기술 장착 (한국경제)

BYD가 바이두의 자율주행기술인 ANP를 자사 모델에 장착할 예정이며 공동개발 협약을 이번주 내 체결할 것으로 알려짐. BYD의 NEV(신에너지차) 판매량은 '21년 59만대로 중국 1위를 차지함. BEV만 보면 '21년 32만대로 3위를 차지함.

<https://bit.ly/3puOnUy>

Ford boosts EV spending to \$50 billion, sets up new Model E unit (Reuters)

포드는 EV 투자를 기존의 300억 달러에서 '26년까지 500억 달러로 늘리고 EV 사업부를 ICE 사업부와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. '26년까지 20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며, '30년 BEV 판매비율 50%를 목표로 함.

<https://reut.rs/3Mii9f>

Rivian buyers are canceling at alarming rates after price increases (electrek)

리비안이 인플레이션과 부풀리비용 상승으로 차량 가격을 약 20% 인상한 이후,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이 빠르게 등장. Rivian subreddit 커뮤니티의 설문조사에서는 3,000명 이상의 응답자 중 1,700명 이상이 취소한다는 의견을 밝힘.

<https://bit.ly/3vz3ShP>

"전직원 400만원씩" 현대차·기아, 특별격려금 쏜다 (한국경제TV)

현대차와 기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4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함. 현대차와 기아 대표이사는 대외 경영환경이 불안정하지만, 고객중심으로 노력시 더 높은 성취가 가능하다는 독려와 함께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이미지를 발송함.

<https://bit.ly/3Mx6FB>

구글, 13년만에…유료 자율주행택시 승인 받았다 (한겨레)

구글 웨이모와 GM의 크루즈가 유료 로보택시 사업 승인을 받음. 두 회사는 현재까지 무료서비스만 시행했으나 캘리포니아 주는 인전 요원 탑승, 속력 제한, 날씨 제한, 지역 제한 등의 조건으로 유료 로보택시 사업을 승인함.

<https://bit.ly/3K3VHOU>

Tesla's Elon Musk explains why too much electric vehicle range does not make sense (Teslarati)

일론 머스크는 '1년 전, 주행거리 600마일의 Model S를 만들 수 있었지만, 불필요한 배터리 무게로 전반적 효율성이 악화 됐을 것'이라고 트윗함. 또한 투시드가 500마일 EV를 최초로 인도했다면 Tesla는 최초로 양산할 것이라고도 언급.

<https://bit.ly/3HJDQ>

Baidu's Robotaxi platform Apollo Go sees its order volume double in Q4 (CNEV Post)

바이두는 4분기 로보택시 서비스 Apollo Go의 주문 건수가 QoQ +100% 상승했다고 밝힘. 또한 컨센서스 322억 위안을 상회한 331억 위안 매출을 기록했으며, 기존의 7개 도시에서 Yangquan을 확장해 8개 도시에 로보택시 서비스 중.

<https://bit.ly/35EZJCT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